

수자원기술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듣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아직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수자원기술공단에서 민영기업인 수자원기술주식회사로 옷을 갈아입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인식들이 이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물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한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민영화, 새로운 도전의 이름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전신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의 주요 업무는 댐·발전 및 광역상수도 시설의 점검정비와 유지보수였다. 수자원공사의 주요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이었던 것. 당시에도 독보적일 정도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인력 덕분에 공기업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는 ‘방만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민영화는 부실 공기업 정리가 아닌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민영화 이후 경쟁력이 약화돼 많은 어려움을 겪던 다른 공기업과 달리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오히려 더 큰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의 큰 고객인 수자원공사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주는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반대로 전국의 지자체와 타 회사들이 모두 잠재적인 고객이 된 셈이었다.

“아직 수자원공사에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민영화 이후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고객 다변화를 통한 기반 다지기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개발처의 한형신 팀장은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민영화 직후 전체 인원 중 30%를 감원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민영화 이전보다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감원 이후 새롭게 받아들인 인재들로 인해 회사에는 할 수 있다는 젊은 패기로 가득 찼는가 하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는 게 한형신 팀장의 설명.

달라진 것은 비단 인원 구성뿐만이 아니었다. 일인당 생산원가

가 낮아지다 보니 이윤은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갖고 있던 다목적댐 발전시설과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노하우는 고스란히 살아 있다. 또한 상하수도시설에 관련된 기술진단 및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국내의 어느 업체와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오히려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과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 때문에 아직도 수자원공사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간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적지 않은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자체 신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술발표회를 갖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료 진단 서비스를 시행한 것.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무료 진단 서비스의 경우 신청이 폭주해 담당자들은 한동안 업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한다. 하지만 그 덕분에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더 이상 수자원공사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

기술이 힘이다

홍보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 바로 기술과 실력. 그렇지 않으면 홍보는 고스란히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다.

“댐의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전기와 연계된 부분이 고장났다면 발전기 업체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업체가 다 동원돼야 하지만 저희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와 같은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장점은 첫째, 하이테크와 기능을 연결할 수 있는 필수요원인 전문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첨단장비 확보와 R&D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있다. 셋째는 돌발사고 발생 시 전국적 조직망을 통하여 이러한 기술을 현장으로 긴급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기동성을 한번에 발휘하여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수자원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에 관한 한 그 어느 업체보다 기술적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영화 이후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나고 있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청정에너지 사업과 각 지자체 수자원 시설물에 대한 Utility Service 사업.



이중 소수력 발전사업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청정에너지를 생산·공급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공익성이 높아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자원시설 Utility Service는 점검, 진단, 보수, 유지 관리를 One-step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 및 주요 수용가에서는 이미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점진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기업과 경쟁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물관리 Total Solution과 관련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국의 수해 현장을 누비며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한 수해복구 작업을 펼쳤다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비록 이제는 사기업이지만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공공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이 성장을 거듭하길 바란다. 그들의 성장이 곧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기술의 성장을 뜻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

“상하수도 관련 신기술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회 기업회원의 기업탐방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문의: 기획처 홍보팀 신재택 (직통전화: 02-3156-7731)